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최종 심의평

예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술단체의 공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예술단체는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현실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많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너무도 다양한 예술장르의 지원자들과 예술현장의 차이를 지원 서류를 통해 모두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예술가들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예술의 공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술가들과 혹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예술의 개념 안에 두고 있는가. 나아가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주요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되지 못한 여러 단체가 눈에 밟힙니다. 더욱 많은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보편성 있는 공감에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정되지 못한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제도 안팎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공적으로 쓰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어졌고,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의 혜택을 많은 예술 단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이 재단측이나 심의 위원들 모두 비슷한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원을 한 예술가들이나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이나 결국 모두가 비슷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보다 희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023. 5. 17.

심의위원 윤호세, 김경민, 민새롬, 이평주